

오늘의 나의 빈들판

김성희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파
빈 들판을 찾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동행해 주실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빈 들판에 나아갑니다.

나의 무익함과 무지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언제나 생기 있고,
힘 있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주님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늘~ 나의 생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경원(초1)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나쁜 로마 왕이
사도 요한을 밧모섬에 보내어
요한은 혼자 살았어요.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일을 알려주어서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나도 예수님 잘 모시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보냄 받은 자로

오성주

하늘의 이슬 없으면
말라버릴 어린 우슬초.
밤새 내리는 빛난 이슬 먹고
내일은 백향목처럼 강인하게 서리.

천국 이슬에
날마다 날마다 젖고 싶어
하늘 보좌 향해
엎드려 보는 이른 새벽.

나약하지만 내 주님께 믿음 두고
저 하늘 보좌의 주님 주목하므로
허락하신 이 하루도 강인하게 서리.
이 땅에 보냄 받은 자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12월 10일(49주) 31권-49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